

태국에서 온 편지1

정기훈 · 홍혜진 선교사 / 하언 예혼 성온 온빛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 완공과 나라의 평안을 목격한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감격하며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 집니까? 재촉하며 원망하고 불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

2014년 12월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2019년 8월 한국으로 그리고 또 다시 2026년 8월 저희를 PCK총회 파송선교사로 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흔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음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오늘도 간구합니다.

1. 지난 이야기 선교사 파송예배 (2026.06.07 / 08.02)

PCK선교사 파송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느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과 인내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포교회 파송 예식



신길동교회 파송 예식

한국에서의 교회방문

총회 선교사훈련을 마치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협력해주시는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공유하며 공감, 연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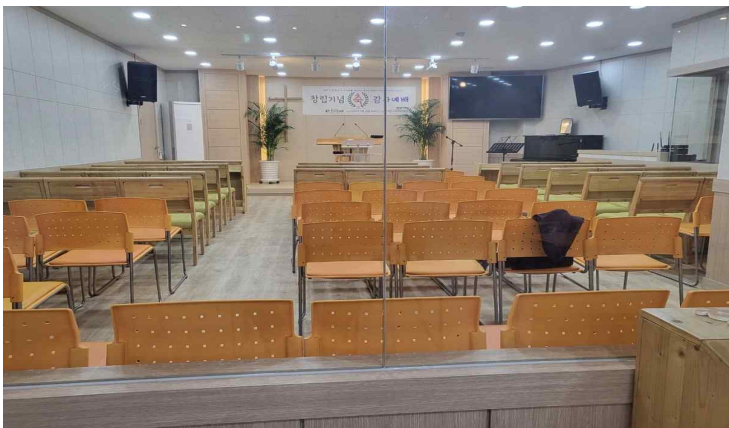
만남을 통해 더욱 간절한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부산땅끝교회



부산은성교회



진영한사랑교회



창원의창교회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다

2026년은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마포, 신길동)를 통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것과 귀한 두분의 담임목사님을 뵈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파송해주신 마포교회 김선태목사님, 태국선교를 위해 힘써 파송해주신 신길동교회 김신회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포교회 청소년부수련회



신길동교회 담임목사님 가정과의 만남

또한 창원의창교회와 함께하는 필그림 미션파운데이션의 대표 류재현집사님께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건강하게 함께 성장하는 신앙공동체되길 원합니다.



마포교회 주일예배



필그림 미션파운데이션 팀과의 만남

안녕 한국!

둘째 딸 예혼이의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상승으로 짐을 줄여 우체국 배편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끝이 없을 것같은 짐정리도 마치는 날이 옵니다. (끝이 난 줄 알았으나 태국에 도착하여 계속되는 짐정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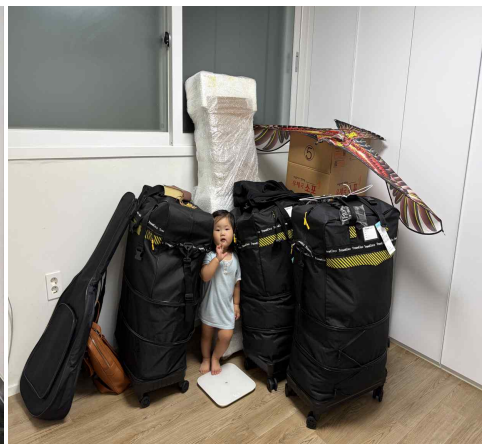
인천공항에서 응원과 기도의 배웅은 저희에게 응원과 격려로 보내준 용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으로 새겨졌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



태국으로 배송중



마포 사택 정리 & 선교지로 이사준비



인천공항에서 축복기도(김신회 목사님)



태국으로 출국 전 단체 사진

2. 앞으로의 이야기

싸왓디캅! 브라텟타이! (안녕! 태국!)

태국 치앙마이 국제공항에 밤 11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공항으로 나와 환영하여 주신 PCK 선교사님들과 반 목사님가정에 감사했습니다. 만남의 반가운 포옹을 시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교를 기대합니다.

8/17 하언 예혼 성은 3명의 자녀는 드디어 학교를 갔습니다. 지난해 겨울 방학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간 중단된 학업이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교생이 16명인 지난해 개교한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심을 믿으며 등록한 학교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지식과 영성이 함께 자라가는 배움의 시간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PCK선교사회와 반목사님부부의 환영



공항에서 집까지 함께



하언 예혼 성은 입학



자녀들의 학교생활

땅끝교회 선교팀과 팀사역

땅끝교회는 태국에 온 후 처음으로 만난 선교팀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역을 협력하는 고마운 교회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한 농롬교회와 치앙마이 외각에 위치한 담롱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기도하며 우리는 주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도이인타논농롬교회 저녁집회



땅끝드림패밀리 주일특송

치앙마이 1노회 노회장과 임원과의 만남

치앙마이 제1교회는 1868년 4월 19일 다니엘 맥길버리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태국 북부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치앙마이 1노회 노회장과 임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중에 태국교단에서 바라는 마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교회 건축으로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힘쓰기를 더욱 확신하며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태국 CCT교단과 선교사의 협력중에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치앙마이 제 1교회



치앙마이 1노회 노회장과 임원

CORNERSTONE 언어학교

태국을 떠나와 지난 7년의 한국생활동안 태국어를 아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매년 태국을 방문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태국 선교의 끈을 놓치 않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보다 더 깊고 넓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여 태국인들과의 깊이있는 나눔, 복음제시 뿐 아니라 복음안에있는 큰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9월부터 저희 부부와 막내 온빛이 함께 공부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대원 동기전도사님과의 태국에서의 만남

함께 울고 웃으며 신대원 시절을 보낸 동기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회 단기선교팀의 치앙마이 사역을 마치고 금같은 시간을 내어 동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응원하며 주인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길, 서로를 응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만남이 계속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ORNERSTONE 언어학교



언어학교 상담중



신대원동기 전도사님의 방문



사랑이와 예혼이

마포 - 통후아창 마이따끼안교회 주일예배

주일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교회의 조직이 하나씩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반과 렉 사역자 가정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음성을 통해 그들의 기다림,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이따끼안교회 주일예배



가정 심방 찬양

기도 제목

1. 삶의 자리 곳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태국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며 자라게 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2. 자녀들이 현지 학교, 문화에 잘 적응하여 즐겁고 기쁘게 만족과 감사를 누리는 태국에서의 삶이 되도록
3. 9월부터 시작하는 언어훈련에 집중하여 잘 배우고 익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4. 선교사를 파송 - 협력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그리고 태국선교현장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내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후원 - 신한 561 009 2037 2634 정기훈 / 기업 095 072477 01 015 정기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